인도네시아

공적채무의 현황과 문제점

인도네시아는 2001년 메가와티 정권의 출범 이후 정국 안정과 경제재건의 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나, 해외 자본유입의 정체에서 보여지듯 국제신인도의 회복에는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재정과 방대한 공적채무 문제로 인한 재정파탄 우려가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IMF 등의 국제지원 지속

2001년 말 인도네시아의 공적채무 잔액은 총 1,370억 달러로 GDP의 94.7%에 이르며, 그 중 대외채무가 거의 절반인 71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채무의 상환으로 대외공적채무 잔고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나, 채무원리금 상환/세입의 비율이 약 30%로 여전히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파탄 회피를 위해서라도 국제적 지원 및 리스케줄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인도네시아 원조국 그룹 회의(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 CGI)와 IMF가 주도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CGI가 보다 크지만, IMF의 지원은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의 전제 조건이 되는 등 동국의 신인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IMF는 2000년 2월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원분의 일부만 인출이 이루어졌다.

2002년 4월 인도네시아의 외채에 대한 파리클럽 채권단의 협상에서는 200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75억 달러의 채무 중 54억 달러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최종 합의했다. 동 합의에 의하면, ODA 차관은 거치기간 10년 포함 20년으로, 非ODA 차관은 거치기간 5년 포함 18년으로 상환기간이 재조정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한 채권단이 종전과 달리 상환기간 연장 외에

〈표 1〉 對인도네시아 국제적 지원 현황

단위 :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IMF	3년간 50억 달러[1]		
계획금액	15.0[2]	15.3	19.7
실시금액	일부 인출	4.0(2001.9)	3.4(2002.1)
CGI	47.3	48.0	-
파리클럽	2000.4~2002.3 중 도래액 58억 달러의 공공채무 상환 연기(2000.4)	-	2002.4~2003.12 중 도래액 54억 달러의 공공채무 상환 연기(2002.4)
런던클럽	2002.3까지의 3.4억 달러의 채무상환 연기(2000.6)	-	-

주: 1. IMF의 지원 기한은 2003년까지 1년간 연장키로 2002년 2월 합의하였음.
2. 지원대상 기간은 4~12월임.
자료: 각 기관 자료 및 보도자료 근거로 작성.

이자까지도 리스케줄링 대상에 포함시켜, 1998년 이후 있었던 세 차례의 협상 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채무문제 해결될 듯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에 발표한 5개년 경제계획(PROPENAS)을 기초로 IMF와 협의 및 수정을 계속해 가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동국 정부는 5년 후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공적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현재의 94.7%에서 50%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 계획은 국영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민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의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어 공적채무 축소도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다만, 환율변동의 상황에 따라 채무축소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구매력으로 평가할 경우 환율은 달러당 5,000루피아가 적정하며, 현재의 달러당 9,600~10,000루피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환율은 루피아貨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루피아貨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며, 환율이 달러당 7,000루피아까지 하락할 경우 GDP 대비 15% 정도의 외채감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화 및 채무축소 달성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동국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동국 정부는 IBRA(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의 금융자산 매각이나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경제성장의 회복과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IMF와 CG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완만하게나마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10년 내에 재정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기 전망[주]

	2000	2001	2002	2003
실질 GDP 성장률(%)	4.8	3.4	3.5	3.9
재정수입 (10억 루피아)	203,861	286,006	289,432	368,663
재정지출 (10억 루피아)	262,707	340,326	332,465	382,538
원리금 상환 (10억 루피아)	72,800	89,570	86,981	69,372
재정수입 대비(%)	35.7	31.3	30.1	18.8
재정지출 대비(%)	27.7	26.3	26.2	18.1
공적채무 잔액 (10억 달러)	150	137	134	127
GDP 대비 공적채무(%)	98.1	94.7	80.2	65.0

주: 인도네시아 정부 전망임.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 PROPENAS 및 세계은행 등.

【동경사무소】